

전체가 하나로 돌아가기에 우리가 내는 한생각이 보배!

21면에서 계속

나로부터 그 구원도 있는 것이 누가 떠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통에 얽매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질문: 제가 아는 분 중의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의식을 잃어 눈을 떠 보니 병당 행화에서 보아 왔던 오간지옥이 보이면서 그곳의 사자가 아직 이곳에 올 때가 되지 않았다고 다시 살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를 지켜봐도 죽어서만이 오간지옥고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과정 또한 지옥고 아닌 지옥고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삶이 힘이 듭니다. 죽어서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살면서 겪는 이러한 고통에 얽매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변: 지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고 지금 답니다. 카세트 하나에 갇힌 것을 지금 짊어지고 다닙니다. 지금도 술을 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막 펄펄 뛰 때는 보살의 행으로, 보살은 지옥에 들어가도 그 펄펄 뛰는 기쁨 도가니를 녹여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칼산지옥이나 화당 지옥이나 그냥 다 없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오간 지옥이 무너지고 맙니다.

왜 그런 소리를 했나? 여러분이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는다면 그냥 딱 가라앉습니다. 전 자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받는 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그 자리에다가 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도 무너지죠, 지옥은 보살이 되죠. 그러나 지옥이 한두 가지입니까? 아수라지옥도 있죠? 술 먹고 들어와서 막 주정을 부리는데 그런 것도 술을 마시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마음에서 그렇게 분기가 일어나고 조금만 보면 그냥 속상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그냥 발산이 되는 거죠.

그 발산이 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길이는 팔십 리요, 넓이는 오십 리라. 그렇게 큰 술의 펄펄 뛰는 기쁨 속에 들어가서 지옥고(地獄苦)를 받으니..." 이러셨거든요. 이렇게 얘기가 돼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팔십 리라는 것은 유(有), 무(無)를 말합니다. 저승, 즉 말하자면 내가 나기 이전으로부터 쫓아 나온 사무! 쫓아 나온 사무! 이렇게 해서 사(四)·사(四), 팔(八), 팔십 리. 그레 십(十)이 들어가면 이게 동일하게 묶어집니다.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니 같이 돌아가서 우리한테 그렇게 고가 자꾸자꾸 다가오는 것을 거기다가 놓게 되면 고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가 있다고 팔자 운명을 타령하지 말고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다. 집안에 어떠한 자식들이 그렇다. 부부가 서로

맞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모든 것은 거기다 맡겨 놓고 생각을 깊이깊이 다잡고 '이거는 전자에서부터 쫓아 나온 지옥이다. 이거를 무너뜨려야지. 이거는 내 주인공밖에는 없다.' 하곤 거기다가 났을 때 지옥고도 다 무너집니다. 해보십시오, 거짓말인가 정말인가.

여러 가지 일체를 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는 데에 무시할 수 없는 국내의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기업이든지 소기업이든지 또는 경제면에서라든지, 또는 남북이 갈라져서 있는 거라든지 말입니다. 또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해야만 앞으로 자라나는 자식들한테 그 보배를 맡겨 줄 수 있고, 길을 인도해 줄 수 있고, 뿌리를 상신하게 잘 해 줘서 역사를 좋게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여러분한테 달려 있는 것입

니. 그럼으로써 이것은 지금 세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무역도 될 수 있고, 앉아서 호국불교도 할 수 있고, 앉아서 마음의 조절도 할 수 있고, 앉아서 모든 스위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스위치를 올리고, 중구난방으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여러분이 잘못되고 못하는 것은 사랑으로 해서는 아니 되니까 주인공에 맡겨서, 주인공이 적절하게 하게끔 맡겨 놓으시란 얘깁니다. 그래야 틀림없거든요. 그게 어느 것이든, 경제, 국방, 통일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부터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질문: 우리가 '한마음' 하는 것도 마음입니다마는 '하늘' 하는 것은 지혜로도 돌아갑니다. '한울'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통신을 말하고, '하나무' 하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 자체로서 세계, 우주, 섭리와 항상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항상 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한생각 그냥 그 자리에 맡겨서 이렇게 하시도 말기만 하면 되느냐. 무조건 스위치만 눌러도 안 된단 말입니다. 스위치 올려놓고서도 뭐 갖다 놓고 하질 않으면 그거는 빈 가스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그 위력이, 도도하고 당당한 위력이 여러분한테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놓고 빌고, 나한테 그냥 묻고 이러는 이게 불법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그렇게 당당히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현실에서 적응하게 만들면서, 지금 웃고 묵묵히 가면서도 주장자 하나를 막 들면 우주를 받쳐 들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여여하게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질문: 놓는 게 뭐니까? 이 세상 일이 놓기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답변: '모두 공(空)해서 잘나잘나 돌아가는 거니까 그냥 놔라. 이게 공해서 돌아가니까 거기다 놔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놓으려면 놓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나 이릅니다. 놓는 게 뭐냐! 왜 어떤 스님은 방하(放下)를 하라 그러고 어떤 스님은 놓으라 그러느냐?

무전통신기도 놀러야 통신이 되죠? 불을 켜려 해도 스위치를 올려야 켜지지요? 가설이 돼서 불이 켜질 수 있는 건데도 자비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불을 켜 때는 켜고 끌 때는 끄고, 자유 아니겠느냐! 만약에 그러한 마음으로 '자비하니까, 부처님은 자비하기 때문에 스위치

를 올릴 것도 없고 내릴 것도 없다.' 이란다면 여러분의 몸은 어떡하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떡하며 세상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똑바로 관(觀)해 보니까? 똑바로 관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도 그렇고, 세계를 똑바로 보지 못해서 우리 국내를 살릴 수도 없고 발전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스님에 역시 머리만 깎고 목탁이나 치고 경(經)이나 읽어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 나 나가나 한번 관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봐서 '이건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하고선 짐을 딱 짊어 놓고 걸어간다면 그건 그대로 통과예요. 그대로. 그대로 실현에 옮겨지는 법칙이예요. 그런데 내 몸 하나 처단 못하고 내 가정 하나 처단 못한다대야 어찌 귀중한, 아주 이 세상에 이룰 없는 이들의 법칙을 어떻게 부처님 법이라고 하겠습니까? 참으

는 그대로 믿고 활용을 하고 믿고 넘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도둑이 침입을 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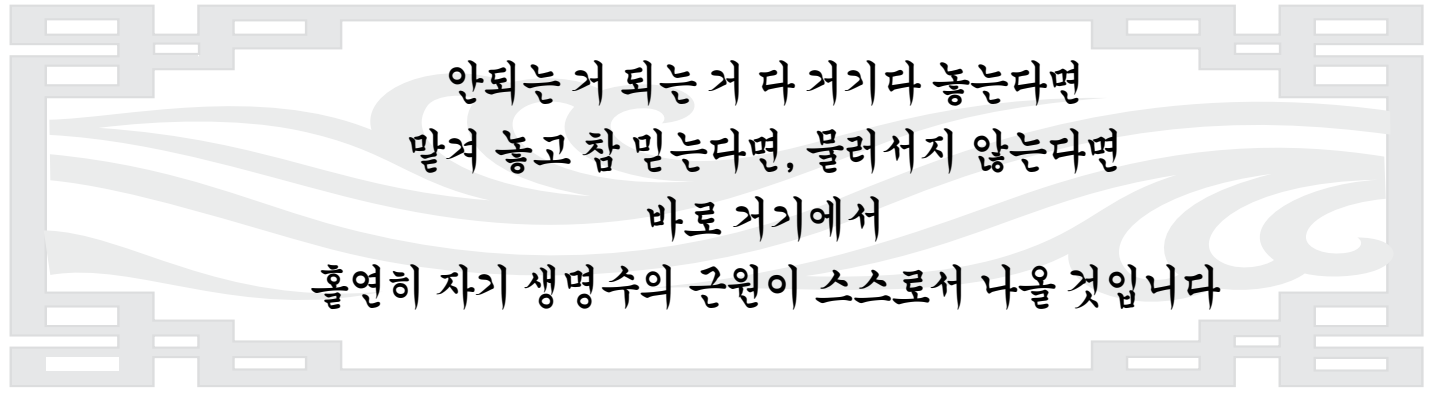
질문: 저는 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집 안에 도둑이 침입을 했다면 어떻게 놓고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하는지요? 그냥 다 가져가도록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때려잡는 것도 주인공인가요?

답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어느 도승이 계신데, 마적 때들이 '야! 도승이러는데 도대체 내가 볼 때 걸레기로 바서는 도승 같지 않아. 그래 네가 도승이라면 어디 내 칼이 안 들어가겠느냐? 네 가슴에는 철판을 대서 안 들어가겠느냐?' 하고선 오는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그랬는데, 아니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자꾸 앞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딱 다가오니까 '저 죽을 줄 모르고 오느냐!' 하면서 '도인은 무슨 놈의 도인인가!' 하면서 칼을 들고 "네 가슴에 이 칼이 안 들어가겠느냐? 진짜로 도인이라면 내놔 바라." 그렇게 했습니다. 칼로 찌러 버리겠다고.

"네 가슴을 찌러서 네 가슴속에 뭐가 들었나 내가 보겠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깔깔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주 추운 동절에 고목을 잘라 봤던들 거기서 꽃이 나오더냐?" 그러곤 불었습니다. 꽃이 나오더냐고. "고목만 잘라봤 뿐 꽃은 나오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만 "스스로서 네 마음에 봄이 온다면 꽃이 필 수도 있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던지고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 봄이 와서 마음에서 향기가 나고 따르던 모든 사람이 전부 그 스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내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렇고 도둑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런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도둑이야!" 하고 "강도야!" 이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부 하는 사람들은 침착하게 거기 맡겨 놓으면 스스로서 몸뚱이의 모든 게 보살로 화하니가 오고 같이 없이 그쪽에 가서 그 사람이 되면 그 사람 마음은 봄이 돼서 그 칼로 사람을 찌르지 못한다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 잘나에 그 사람 마음에 봄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그저 한 가지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돈을 받으려 갔는데 돈이 있는데도 안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 놓고 살아, 착하게, 약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돼야, 그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야 당신 돈 줄 거 아니야? 그러니 항상 착한 마음으로써 다 놓게 되면 스스로 돈을 갖다 주게 돼 있어." 그랬습니다. 착하게 놓으니까 스스로서 그 사람이 돈을 갖다 주더라고요. 정말. 그랬다는 셈으로 우리는 무술도 고수가 되려면 그렇고, 태권도도 마음을 놓지 않고 모든 잡념을 버리지 않고는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유인이 되시라고요.



로 이 부처님 법은 너무도 신비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은 체가 없어서 뛰어 넘으려면 시공도 없는 것이 잘나잘나 돌아가니 공(空)해서 돌아가는 이 자체를 색(色)이 공(空)이요, 공이 색이니 그 자체를 뛰어넘어라 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도 나라에 이러한 도리를 증득한 분이 있으면 그 나라를 치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습으로 서로 싸워서 이기고 지는 것은 고사하고 그런 데를 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거를 아는 자는 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도 가끔 있었죠. 공부하는 인간이 살다 살다가 어떻게 참, 독사지옥으로 떨어져서 큰 뱀이 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사람을 해치지 않고 일련 단신 공부를 했더랍니다. 공부를 하는 도중 얼마 안 남았는데, 군인들이 주둔을 해 가지고 그 동네를 그냥 꼭 모두 깨뜨려 버리고 쳐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몸뚱이가 동강동강 낫죠. 즉 그로 인해 그 동네가 망했다는 얘깁니다. 자신들이 전부 미치고 병들고, 다 흩어지고 죽고 그러니까 그냥 망한 거죠. 그만큼 이거는 미신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미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르면 당하고 알면 대처를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향·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

구분	화재	화재	상해
기본 가입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 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현정위험 심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시 필요자료**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가입 및 상담 문의 011-648-1203 / 010-9996-7700 동부화재 서일석(無着)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6호

ISA규정번호 890.5660, ACCESSION NO 0780530-000

미국 FDA에 등록된 자동치료기의 놀라운 효과

국제발명특허 획득! wo2004108049 수입독점공급

첨단과학기술로 탄생한 특수 보석렌즈를 통과한 빛이 어혈을 맑게 하는 자동치료기!

심근경색증 · 협심증 · 만성두통 · 생리통

착용만하면 자동치료

당뇨, 동맥경화, 뇌혈전, 만성피로, 불면증, 뒷목뻐뻐, 갑상선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손발저림은 3~4일, 만성두통은 7~15일

도끼로 찍는듯한 가슴통증으로 고통받는 분에게 희소식!

지긋지긋한 편두통, 생리통, 어지럼증 치료! 허혈성심장질환에 탁월!

콜레스테롤함량, 중성지방, 혈소판응집능, 혈액점도도 · 혈액의 주요지표들이 정상화되며 대사장애를 바로잡고 전신면역기능을 높인다.

만병을 일으키는 오염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방문시 눈으로 직접 보여드립니다.

※ 열액순환장애로 인한 통증은 (두통 · 생리통) 즉에서 완화되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 POLA 팔찌
△ POLA 반지

※ 18년과 1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실험!
KBS일요스페셜(07.9.30)방송 / MBC통일전망대(06.11.22)방송
연합뉴스, 문화일보, 한국경제, 내일신문, 조선닷컴, 동아닷컴 보도

천일의학기공 연구회 02)3436-3206
2호선 구의역 1번출구 바로앞 구동가게건물 205호
◇자매점: 파워방, 골반사랑101, 척추사랑(산선대)